2018 봉은사

강남 포교 1번지, 수행·기도 성지로

1월 25일 신년 기자회견서 수행기도 중심 방침 밝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날 기자회견에는 봉은사 사중스님들과 신도대표들이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원명 스님(오른쪽 사진)은 수행 · 기도로 청정도량으로 봉은사를 가꾸겠다고 밝혔다.

기도중심 도량 정착
매일 사분정근 수행
다문화 연등 조직, 법회
함께 정진하는 문화 조성

수행 문화 공간 확보
3000명 수용 대법륜전 건립
극장식 구조, 문화행사 소화
미륵대불 후벽면 원불 봉안

교육 · 문화유산 보존 정비
기초학당 국장 담임제 도입
생전예수재보존회 설립
'판전' 문화재 지정 추진

서울 강남의 대표사찰인 봉은사가 수행과 기도 중심 도량으로 변모한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월 25일 봉은사 다래헌에서 2018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을 비롯해 총무국장 진각 스님, 교무국장 서송 스님 등 봉은사 스님들과 종무원, 홍선심 신도회 사무총장 등 신도 대표들이 참여했다.

주지 원명 스님은 "종단을 대표하는 사찰이자 강남 지역의 포교를 담당하는 사찰로, 수행가풍 확립의 기조에 맞춰 수행 기도 중심도량으로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매일 끊이지 않는 기도

먼저 봉은사는 3월 12일 33관음보살 대원성취 천수다라니 정진기도에 입재해 매월 음력 24일 33개월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신도 동참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기존 다라니기도를 매월 자비수참철야기도로 변경한다.

신도들의 수행을 점검하기 위한 신행수첩도 보급된다. 보시와 정진, 지계, 법회 및 기도참석 등 일일단위 신행을 점검하도록 한다. 또 매주 일요일 진행되는 일요법회서는 가족이 함께 합창단과 찬불가를 배우는 자리가 마련된다.

일요법회서는 봉은국악합주단과 함께 찬불가를 배우는 시간도 진행되며, 매월 마지막 주에는 재가자가 진행하는 다채로운 법회가 도입된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연등법회도 신설돼 소외계층도 함께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000명 수용 법당 마련

봉은사는 법회마다 5000명 이상씩 운집할 뿐만 아니라 연평균 10만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사찰인 만큼 수행공간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봉은사는 지난해 전통문화체험관 1관과 2관을 준공한데 이어 3관인 템플스테이 전용체험관 불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신종루, 매화당, 응향당 등을 개축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3000명을 수용하는 법당인 대법륜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명 스님은 "봉은사는 초하루 법회 경우만 해도 4~5000명이 넘는 신도들이 모여, 공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봤다. 가장 큰 공간인 법왕루만해도 500명 수용에 불과하다. 또 고령화로 연로하신 불자들이 좌식에 힘들어 하며, 청년불자들도 입식문화에 익숙하다. 주차장 부지에 지하 6층 규모로 입식 극장식 현대화된 법당을 만들 계획"이라며 "3000명 가량의 법당에서 연극과 문화행사 등 평소 공연장 용도로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봉은사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 지역단체 등과 지속 논의해 현 주차장 공간을 지상 3층(전통문화 공간), 대강당과 주차장이 합해진 지하 6층 공간으로 개발한다.

생전예수재, 발우공양 등 문화 정비

이와 함께 봉은사가 지닌 무형유산을 발굴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생전예수재의 문화재 등록이다.

원명 스님은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의미에 대해 "조선시대 명맥이 끊겼지만 봉은사에서 1600년대 생전예수재를 지낸 기록이 있다. 불교의례 중 영산재, 수륙재만 문화재 지정을 받은 상태로 생전예수재의 문화재 지정이 불교의례 제도화의 완성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생전예수재 계승을 위해 사찰출연법인으로 '생전예수재보존회'를 등록했으며 지난해 6월 서울시로부터 법인 설립이 허가됐다.

현재 봉은사는 발우공양 또한 서울시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해 준비 중에 있다. 경내 전각 중 판전은 2016년 서울시 문화재 등재 신청한 상태이며, 선불장 또한 구들장을 복원하는 등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청년 · 외국인 위한 사찰로

이와 함께 2017년 6월 청년 불자 확보를 위해 108청년회를 발대한데 이어 올해 어린이법회, 파라미타법회, 대학생법회 등 활성화를 위해 계층별 홈페이지, SNS를 개설해 계층포교 활성화에 나선다.

또 영유아 마정수기법회, 청장년 불교식 전통혼례, 웰다잉프로그램 등 연령별 사찰의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목요상설 국악콘서트, 특별템플라이프가 진행되며 불교영어강좌를 통해 언어 봉사자 역량 강화와 외국인들을 위한 봉은사 영문 매거진도 발행된다.

원명 스님은 "수행을 통해 불교 기본정신을 되짚고 사부대중이 화합하는 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KTX해고승무원 "불교계에 감사"

1월 23일 설정 스님 예방

KTX해고승무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종교계의 중재로 승무원들의 환수금 문제가 일단락된 데 대해서다. 승무원들은 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 문제에도 관심을 호소했다.

KTX해고승무원들은 1월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예방하고 환수금 문제 해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불교 등 4대 종단의 중재로 1월 16일 KTX해고승무원들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돌려줘야 할 환수금이 기존 금액의 5%인 총 1억 4256만원(1인당 432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장은 "총무원장 스님이 다른 종단과 함께 중재안을 제출해주셨다. 덕분에 환수금 문제가 잘 해결돼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많은 스님들이 108배, 오체투지 등 수행을 활용해 항상 도와주셨다"고 인사했다.

이에 설정 스님은 "사회노동위원회와 조계종 사회부에서도 나서서 잘 도와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KTX 여승무원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는 1월 25일 오후 1시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KTX승무원 복직을 염원하는 108배를 진행했다. 사회노동위는 같은 날 오후 3시, 하이디스 노동자 해결 촉구를 위한 문제해결 기도회도 봉행했다. 박진형 기자

군포교 오랜 과제 전역 군종병 관리 네트워크 '본격화'

군종교구와 대불청, 대불련 1월 25일 MOU

매년 100여 명 전역, 관리 시급
사찰 · 불교학생회 적응 도와
대학서 불교군종병 지원 홍보
군생활 멘토링, 진로 상담도

"스님, 저 전역합니다. 덕분에 군생활 동안 신심이 높아졌습니다. 제대 후에도 꼭 사찰에 나가겠습니다."

군부대 장병 중 가장 부처님에게 가까운 이는 누구일까. 바로 군법당 지킴이 불교군종병이다. 장병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이끌어 온 불교군종병들을 청년불자의 핵심으로 키우기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성권) 등 청년단체는 1월 25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군종병 네트워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종병은 크게 인가와 비인가 군종병으로 나뉜다. 인가 군종병이란 입대할 때부터 군종 병과를 받아 군법당에서 복무하는 정식 군종병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의해 군종교구는 전역하는 불교군종병들의 정보를 대불청과 대불련 등과 공유하며, 대불청, 대불련 활동경력이 있는 군종병 지원자를 우대하여 선발한다.

대불청과 대불련은 청년회와 불교학생회에서 군종병 지원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입대 전 사전 불교교육을 지원한다.



중요한 점은 제대하는 불교군종병들에게 청년회와 불교학생회 등 다양한 모임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대한불교청년회 차원에서 이들이 각 사찰청년회와 대학 불교학생회에서 수월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맡는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140여 인가군종병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비인가 군종병에게까지 확대된다. 조계종 군종교구에 따르면 전체 군종병은 350여명 수준으로 매년 전역자만 1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청년불자 확보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네트워크 구축을 앞두고 그동안 수계장병의 전역 후 관리에 대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불교계 목소리가 높았다.

군종교구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과 군 내 종교중립 등의 문제로 장병들의 정보 네트워크는 현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불자로서 소양을 닦을 불교군종병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진행되는 국방부 군종병 자체 선발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불교군종병을 병무청 전문특기병으로 단일화, 일선 부대서의 선발을 폐지했다. 불교군종병은 홍보 부족으로 그동안 이웃종교계에 비해 지원율이 저조했다. 대불련에서의 불교학생회 회원들의 군종병 입대 독려 등으로 군종병 수급 또한 원할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은 "군장병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이며, 불교군종병들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이라며 "군생활 동안 신심으로 수행정진한 이들을 불교계 핵심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장은 "불교군종병 역량 강화를 위해 입대 전 교육도 중요하다. 군종병 출신 회원들이 군생활 멘토링을 비롯해, 전역 후 진로상담 등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도반HC-동국대 상호발전 사업 모색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와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상호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모색한다.

도반HC(대표이사 설정)와 동국대(이사장 자광)는 1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이 같은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법인과 종단 간 상호교류를 위한 사업과제 도출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출판 · 미디어 · 부동산컨설팅 · 기획제작 · 유통 등 산학협력과 관련된 공동사업을 구상할 방침이다.

이 자리서 도반HC 대표이사 설정 스님은 "동국대는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 세워진 학교로서 종단과 결코 둘이 아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함께 발전하고, 세상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새해 법보시

마음이 사람을 그릇되게도 만들며, 마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마음이 훌륭한 수행자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천사를 만들기도 하며, 마음이 사람답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축생으로 만들기도 하며, 마음이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 〈불반니원경〉

윤수납자 합장